



이 미 현

『학력사항』

- 서울 상명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미국 Harvard Law School 법학 석사(LL.M.)

『경력사항』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미국 Chicago소재 Rudnick&Wolfe 법률사무소 소속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재정경제부 정책자문평가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금융분과 부위원장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1984년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I. 길잡이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고시잡지에 실린 합격기를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합격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막상 합격기를 쓰려니까 두려움이 앞선다.

내가 생각해도 나의 이야기는 합격기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이다. 놀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귀감이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아니었고, 내게 무슨 엄청난 역경을 이겨낸 눈물겨운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는 이렇게 공부했노라고 당당히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럼에도 감히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럼에도 감히 합격기를 쓸 생각을 한 것은, 나 나름대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보고 싶은 욕심과 나의 시행착오가 다른 이들에게 장애를 비켜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이다.

II. 법학을 시작하면서

1979년 나는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여자가 법대에 가는 일은 흔치 않았기에 왜 법대에 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대답이 궁해서 찝찝 매었다.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고등학교 때 난 문학을 꽤 좋아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좋아하는데 불과했을 뿐, 내게 문학적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쪽을 포기하고 나니까 달리 갈 만한 데도 별로 없었다. 법학이야 천부적인 소질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법대를 택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어린 내가 보기에는 판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막상 법대에 들어온 다음에는 ‘고시’라는 단어를 아예 잊고 지냈다.

겨울방학도 거의 끝나갈 무렵,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많은 동기들이 법학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야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물어본다는 것이 하필이면 債權各論을 보고 있던 사람에게 나도 이제는 공부해야겠으니 그책 제목 좀 알려 주라고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지경이었다. 어찌든 창피를 당한 덕분에 나는 民法總則부터 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날 民法總則을 사들고 학교에 갔다가 마침 아는 선배를 만나, 고시공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처음으로 法學에 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한 달간은 꽤 열심히 했다.

오전에는 독일어학원에 나가고, 오후에는 학교도서관에서 民法總則과 독일어를 공부했다. 하지만 개방을 하고 술렁대는 학교분위기에 휩쓸려 다시 공부와는 멀어졌다. 게다가 점심, 저녁을 부실하게 먹고 안하던 공부를 한 탓인지 몸도 별로 좋질 않았으니, 그럴 듯한 평계도 있었던 셈이다.

결국 5.17로 학교문을 닫게 되었고, 오랜 休

校에 접어들게 되었고, 休校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가야할 곳을 잃어버린 나는 그 막막함을 견디어 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고시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학생이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한없이 죄스럽게 느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다. 갈등과 방황을 거쳐,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읽다가 접어두었던 책들을 손에 잡긴 하였으나, 능률은 별로 오르질 않았다. 노는 버릇 들이기는 쉬워도 공부하는 버릇들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때 실감했다.

가을에 접어들어서야 학교문이 다시 열렸다. 유난히도 짧았던 2학기도 금방 지나가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학교도서관에 나가 기본삼법을 1회독하고 나니 1차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간은 기본삼법 문제집풀기와 암기과목에 치중했는데 시간은 터무니없이 모자랐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체력이 현저하게 딸리는 것을 느꼈다. 대충 저녁 8시경이 한계선이었던 것 같다. 8시가 넘으면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다. 그래도 매일 10시까지 버티었다. 옆에서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먼저 나오기는 싫었기에... 이게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시험을 한 달 앞두고서야 깨달았다. 이때 쯤 되니까, 아침부터 집중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놀 수도 없어서 집중이 되는 말든 무조건 책장을 넘겨댔다. 이렇게 시험준비는 엉망으로 해놓고 시험을 치러니까, 잔뜩 긴장이 되는 바람에 1차시험 전날 밤은 잠을 이루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꼬

박 세우고 시험장에 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긴장을 한 탓인지, 오전 시험은 비폭적 맑은 정신으로 치렀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나니, 몸이 노곤해지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문제를 읽는 데도 정신집중이 잘 되지 않아 어떤 문제는 두 세번씩 읽어야 했다. 다행히 오후 과목은 별로 안 어려웠으므로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부터는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매일 도서관을 드나들며 꽤 열심히 했다. 아마 이때가 내 시험공부기간 중 최고로 열심히 한 때였던 것 같다. 오래 전이라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으나, 하영튼 여름방학 끝날 무렵 상당히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1차시험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내년에는 1, 2차시험을 함께 붙어서 이 원수(?)를 갚겠노라고 다짐한 덕분이었던 것 같다. 한테 가을이 접어들면서 내 위장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2주가량 꼼짝없이 누워서 보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후에도 한 달 가량은 계속 약을 먹어야 했으므로 내 계획에는 엄청난 좌절이 생겼다. 결국 2차시험은 포기하기로 하고 12월부터 기본삼법을 읽기 시작하여 거의 끝나갈 무렵, 3월 예정이었던 1차시험이 6월호 연기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시 2차시험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우선 민법 보던 것 마저 보고는 2월, 3월에 상법,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을 보고 4월부터 기본삼법을 다시 본 후 6월의 1차시험에 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상외의 시간이 생기자 마음이 느긋해지는 바람에 탄전 피우다가 4월 말경에 가서야, 형소법외의 나머지 과목을 끝냈다. 헌데 그때부터 1차시험을 준비하려니 막막했다. 民法교과서들을 다시 볼 시간은 없는데, 그렇다고 1월에 읽은 것으로 6월 중순에 시험

을 치를 정도로 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러다가는 2차시험은 고사하고 1차 시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겁이 덜컥 났고,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 후회가 되었지만, 그런다고 지나간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점점 초조해졌다.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다. 일주일가량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니 공부도 뭐고 의욕을 잃게 되고, 뚜렷한 대상도 없이 자꾸 무서워졌다.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국은 병원에 찾아갔더니 폭 자는게 약이라며, 수면제를 놓아주어서 정신없이 자버렸다.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정신없이 자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었다.

학교에 갔더니 그 전 해에 1차시험이 붙은 친구가 내가 해메는 게 딱해 보였는지 계획표를 세워주겠다고 했다. 1차시험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달렸다면, 무척이나 빠빠하게 계획을 짜 주었다. 民法은 문제집을 보는 대신 하루 300p 정도로 교과서를 속독하기로 했다. 이 계획표는 그때의 내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아마도 그런 다급한 순간에는 경험자의 충고는 마력을 지니는 듯 했다. 약간은 무리한 계획이었음에도 民法을 債權總論까지 밖에 못읽은 것만 빼놓고는 거의 완전하게 계획표대로 해내었다. 덕분에 1차시험은 무난하게 붙을 수 있었다.

하지만 2차시험을 치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학기말고사와 리포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모자란 시간은 더 모자랄 뿐이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아졌다고 생각했다. 기본삼법은 1차준비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과목만 한번씩 훑어 보았다. 다만 國民倫理는 뒤로 미루다보니 결국 200p 정도만 읽고 그냥 갈 수밖에 없

었다. 2차시험은 예상보다는 잘 봤다. 쓸 말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외로 별로 막히지 않고 써 내려갔다.

물론 영성한 답안이기는 했지만, 나는 큰 실수없이 장수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이었다. 다만 국민윤리는 너무 덤벙대다가 실수를 했다.

시험직전에 책을 뒤적이다가 남북한의 정치 현실비교라는 부분을 보았다. 한데 50점짜리 문제가 '남북한의 理念과 體制比較'였다. 나는 직전에 본 것이 나왔다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재고의 여지도 없이 정치의 理念과 체제에 관해서만 열심히 늘어놓고 나왔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비로소 깨달았다. 아차, 이념과 체제비교는 政治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경제·사회·문화는 어쩌구... 아찔했다. 하지만 설마 떨어지면 다른 과목 때문이지 윤리때문에 떨어지기가 하려구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랬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제24회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에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보는 것 자체가 힘겨웠다. 4시간을 정신없이 쓰고 나면, 어깨와 뒷목이 굳어져서 고개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집에 와서 지압을 받고, 찜질을 하고 나서 풀어놓아도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나면 마찬가지로. 너무 아프니까, 시험장에 그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야 후회가 없을 거라는 일념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참가를 했다. 참가에 의의를 두고...

백지를 내게 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시험을 보러갈 정도였으니, 합격은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막상 포기하고 공부하러니 도무지 책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래도 한 가닥 미

련을 버리지 못했던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담담하게 낙방소식에 접할 수 있었다. 나중에 평균은 되는데 윤리가 39점이었음을 알고 약간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그 등수로 붙는 것보다는 1년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붙는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미련을 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앞둔 마지막 가을은 자꾸만 나를 처량하게 만들었다. 학교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해졌다. 난 도대체 지난 4년을 무엇을 했나? 무척이나 아등바등 살았건만 결국은 아무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교문을 나서야 하다니...

결국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도 학교생활을 연장해보려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다.

대학원시험이 다가오면서 시험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다보니, '허무'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헌데 대학원 시험, 기말고사, 졸업시험을 모두 마치고 나니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느낌이 들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한꺼번에 긴장이 확 풀려버리고 나니, 다시 시험공부로 되돌아가지지를 앓았다. 졸업식이 끝날 때까지 이래저래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어느덧 3월이었다. 결국 5월까지 精讀으로 1회독하고 6월에는 과목당 3~4월씩 잡아 1회 速讀을 한 후, 마지막 2주 정도에 총정리를 하겠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후회를 거듭하여 6월초에야 겨우 1회독을 할 수가 있었다. 나머지 기간 동안 행정법과 국민윤리를 제외한 6과목만 速讀을 하는데 그쳤다. 국민윤리를 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작년에 비하면 양호하다며 위안을 했다.

시간은 이미 흘러가버렸는데 후회하고 불안 해봤자 그나마 제 점수도 못찾게 될까봐 억지로 자신을 가지려고 애썼다. 그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다. 한데 복병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다. 내가 行政法 下卷은 별로 공부를 안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下卷에서 두 문제나 출제된 것이었다. 공무원의 服從義務의 限界는 그래도 비슷하게 썼는데, 警察責任은 8줄 정도 쓰고 나니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다. 그냥 과감하게 그대로 내는 건데, 그래도 미련이 생겨서 그걸 불리고 또 불려서 3페이지나 쓰다보니, 답안내용이 뼈뺏하게 흐르고 말았다. 그런데도 왜 그리도 미련했는지 시험을 치루는 순간에는 그런 헛소리는 안 쓰는 것이 차라리 득점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하질 못했다. 답안지를 내놓고서야 비로소 후회를 했다. 옳게 쓴 부분까지도 이 수험생이 알고 쓴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할 거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났다.

발표가 나기까지 2달 동안을 초조하게 보냈다. 아무래도 행정법이 과락일 것 같다는 불안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역시 명단에는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1년을 더 할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더 해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공부는 영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러던 중, 2차시험 점수를 알게 되었다. 역시 행정법 과락이었다. 39. 66...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라고 부르짖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主觀·目標·誠實... 그런 것을 잊고 산 결과였노라고... 시험공부가 길어지다보니 어느새 매너리즘에 젖어들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와서는 건성으로 책장이나 넘기면서 나는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그러나 그런 적당주의가 통할 수 있으리라 막연히 믿고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물고 늘어진 복병이 어느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다 튀어나온 셈이었다.

운이 없었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기에 실력이 부족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씩이나 과락이라니... 자신의 태만함을 탓하는 수 밖에 없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이런 후회는 이것으로 끝을 내야겠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겠노라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최선을 다 해 본 후 미련없이 손을 떼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시험공부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시험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 신경이 그런 생활을 더 이상 버티내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동안 공부해 본 결과로는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1년 더하나 덜하나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시험성적에는... 어차피 답안이란 주어진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것이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최종정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남은 반년은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그 후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시험에서 손을 떼리라 마음먹었다.

1차시험 부담까지 결코 시간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시험이 20일 정도 앞당겨졌다. 계획이 또 다시 무너지기 시

작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불으리라고 무조건 믿기로 했다. 그건 터무니없는 믿음이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을 주었다. 너는 불을거야라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시험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길이 없었다. 4월초에 1회독을 마친 후 민법과 헌법만 한번씩 더 본 후 1차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1차시험이 끝나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으나, 1차시험 준비하느라 공백이 있었던 탓으로 욕심만큼 속도가 나질 않았다. 마음만 급하여서 이 과목 저 과목 옮겨 다녔을 뿐, 끝까지 다 본 과목이 드물었다. 게다가 시험보기 2주일쯤 전에는 위가 또 탈이 나서 1주일가량을 날려보냈다. 먹지를 못한 탓인지 약때문인지 책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책상에 앉아 있기조차 힘이 들었다. 약간 과식한 것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다. 소화제까지 먹었는데...

시험직전의 황금같은 일주일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금년에는 또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조금씩 회복될 무렵 1차시험의 발표가 나고 한 가지 불안은 털어버린 덕분인지, 그 다음부터는 몸은 그럭그럭 견딜만했다. 낭비해 버린 일주일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나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해이니까...

결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총정리는 미흡한 상태에서 제26회 2차시험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기분이었기에 비교적 담담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덕분에 큰 실수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번에도 과락결정은 하지 않았도 되리라는 기분이 들었다. 별로 잘 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본 지가 오래되다보니 답안을 쓰는 것이 여간 뻘뻘하질 않았다. 오히려 제25회때보다 더 힘이 들었다. 하지만 합격선은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발표일이 가까워 옴에 따라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발표 전날은 불안한 마음에 오전내내 피아노만 치다가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고시잡지에 가자고 하기에 따라 나갔다가 승격을 확인했다. 지겹던 고시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뻐다.

Ⅲ. 시행착오의 과정

나의 고시공부는 시행착오투성이였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번 거치면서 비로소 고시공부란 이런 거구나하고 어렵פות이나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基本서책은 가장 보편적으로 읽히는 것들이 제일 무난한 듯 싶으므로, 구태여 여기서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일단 기본서를 정했으면 기본서를 위주로 하고 다른 책들은 기본서를 보충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기본서를 자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다. 나의 경우 시험 얼마 전에 기본서를 바꾸어 보았더니 막상 최종정리를 위해 速讀을 하려니까 새로 바꾼 책은 한 번밖에 안 읽은 탓으로 속력이 나질 않았고, 원래 보던 책은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느리고 해서 무척이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둘째로 느낀 점은 고시의 승패는 마지막 1~2월이 좌우한다는 점이었다. 언젠가, 누군가의 승격記에서 고시공부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고시공부란 10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8개월은 물붓는 능력을 키우는 기간이고, 나머지 2개월은

그동안 키운 능력으로 정신없이 물을 부어서 밀빠진 독일망정 물이 출렁대게 만드는 기간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시험을 쳐 본 결과 이 말은 어김없는 사실이었음을 실감했다. 제25회의 경우 행정법과 국민윤리를 제외하고는 직전에 본 것들이어서 답안이 매그럽게 술술 써갔었는데, 제26회는 최종정리가 부실한 데다가 1차시험을 준비하느라 공백이 생겼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3~4월 전에 읽은 기억을 되살려 써야만 했다.

결국 쓰기는 썼지만 답안을 써내려가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고 전체적인 구성이 엉망이었다. 결코 매끄러운 답안은 못된다는 느낌을 계속 갖으며 시험을 치렀다. 민법을 제외하고는 대충 채점기준이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 나는 국민윤리와 행정법을 빼고는 건과목이 점수가 내려갔다. 결국 내 답안이 작년 만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1년을 더 공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최종정리가 너무나 부실했던 때문이라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고시공부란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관리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운동을 조금씩 해두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24회때 실컷 고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버릇을 들었는데, 그 덕분에 제25회, 제26회 시험은 제24회에 비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치를 수 있었던 같다.

그 전에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作心三日에 그쳤었는데, 이때부터는 잔뜩 다급해진 데다 여럿이 어울려 한 덕분에 비교적 꾸준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신경을 쓴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V.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듯 싶어 무척이나 후련하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작은 시작에 불과함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본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차례인 것 같다.

영양가있는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시며 나의 체력관리를 도맡아 주신 어머니의 정성은 물론이려니와 그 외에도 여기에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지나간 5년... 흔히 고시공부를 잿빛생활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 덕택으로 그런 삭막함을 조금은 털어낼 수가 있었다. 항상 명랑했던 그들 덕택에 식사시간은 언제나 정신없이 웃다가 보냈고, 그런 순간들은 삭막한 고시 공부에 청량제 역할을 해 주었다. 물려다니다 보니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덕분에 나는 시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많이 해방될 수 있었고, 주기적인 슬럼프에 빠진 적도 거의 없었다.

좋은 친구들 덕분에 삭막했던 기억만이 아니라 아기자기한 추억들을 함께 남긴 채 고시 공부를 끝낼 수 있었음을 더없이 감사하고 있다.

다만 원서까지 나란히 내놓고는 승格的 기쁨은 함께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섭섭할 뿐이다. 하지만 제27회에서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금년 발표일에는 모두 기쁜 맘으로 삼패인이라도 터뜨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